

한미 FTA 100일 한·EU FTA 1년, 그 성과



“

세계경제가 어렵지만 FTA를 활용하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특히 FTA로 인해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2012년 3월 15일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방문시

”

CONTENTS

목 차

I	왜 우리나라는 FTA가 필요한가?	06
II	FTA 활용 지원 현황	08
	1. 추진 배경 및 경과	
	2. 주요 과제별 추진 실적	
III	주요 지표 추이	18
	1. 교역	
	2. 활용률	
	3. 투자 유치	
	4. 주요 소비재 가격	
IV	향후 계획	27
V	FTA 지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0

국민 실생활에서 FTA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한·EU FTA가 발효된지 1년여, 한미 FTA가 발효된지는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FTA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제기했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들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걱정과 우려는 지나친 기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EU FTA의 경우, 발효이후 약 1년동안 FTA 관세혜택을 받은 품목군의 수출이 20.2%나 증가함으로써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대유럽 수출 감소를 상쇄시키는 버팀목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의 경우에도 발효이후 세달동안 FTA 혜택 품목군은 16.8% 증가한 반면 비혜택품목군은 3.8% 증가에 그쳐 FTA 체결 효과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이러한 FTA 효과가 중소기업이 주로 생산하여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섬유 등의 산업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FTA 발효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일자리 창출 등의 측면에서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FTA 효과가 우리 경제 전체에 두루 퍼져서 우리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이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앞장 서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복잡한 원산지 인증을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외 수출시장 개척도 적극 돕겠습니다. 또한 FTA로 인한 이익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도록 지속적으로 가격동향을 살피고 소비자 입장에서 유통구조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FTA 보완대책도 피해만 지원하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서서 농수산업 등의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국내 소비자들 10명중 7명이 FTA가 국내 경제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도 확대해줄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생각이 단순히 '기대'에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되도록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한·EU FTA와 한미 FTA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우리의 국운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2년 7월 10일
대통령실 경제수석 **김 대 기**

I

왜 우리나라는 FTA가 필요한가?

Q1 왜 미국, 유럽, 인도, 남미 등 전방위적으로 FTA를 추진하나요?

▶ 자원이 빈약하고 수출로 경제를 꾸려가야 하는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의 시장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만이 글로벌 경제에서 살아남고 번영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의 1%도 안되지만 FTA로 인해 세계 GDP의 56.6%라는 시장을 자유롭게 활용하게 됩니다. 앞으로 중국이나 일본까지 포함하게 되면 80%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역동성을 감안할때 FTA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Q2 FTA는 우리 경제에 어떤 보탬이 됩니까?

▶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럽이라는 세계 양대 시장과의 FTA를 통해 우리 수출은 더욱 확대됩니다. 더구나 한미 FTA는 일본과 중국 등 경쟁국에 앞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전략적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FTA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4만 달러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징검다리입니다.

Q3

FTA가 우리 가정에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으로부터 상품이 싸게 들어오게 되고, 서로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추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커지고 값싸게 살수 있게 됩니다.

* 예를 들면, 미국 산 자동차의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일본 자동차나 국산 자동차와의 가격경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간 뉴질랜드의 키위가 독점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으나 칠레산 키위의 도입으로 가격이 30% 인하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Q4

FTA의 파생효과는 무엇입니까?

세계 모든 기업은 가격경쟁력이 높은 나라에서 제조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 일본 등에서 사업을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지으면서 고용을 창출하는 외국인직접투자(FDI·Foreign Direct Investment)와 유턴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 코트라(KOTRA)와 대한상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중국 진출 240개 기업 중 12.5%가 유턴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지난해부터 현지 임금 상승을 비롯해 생산 여건 악화로 유턴 희망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II

FTA 활용 지원 현황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한·EU FTA(2011.7.1) 및 한미 FTA(2012.3.15)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FTA 발효는 8건*, 45개국으로 확대

* 칠레, 싱가포르, EFTA(4), 아세안(10), 인도, EU(27), 페루, 미국

- 세계 경제규모의 60% 수준까지 경제영토가 확대되고,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3분의 1 이상을 FTA 체결국과 교역

* 향후 중국, 일본 등과의 FTA가 모두 발효될 것을 가정할 경우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은 약 90%까지 확대될 전망

-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효과를 기업 및 소비자가 최대한 향유하도록 체계적인 활용 지원정책을 추진 중

■ 추진 경과: 한미 FTA 발효(3월 15일)를 계기로 ‘FTA 효과 극대화 방안*’을 마련하여 위기관리대책회의(3월 21일)에서 보고

* 기업 활용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소비자 후생 증대 등의 4가지 중점과제 제시

● FTA 활용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 이행 상황 점검 및 지원사업의 협의·조정을 위해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기로 함

● FTA활용지원정책협의회* 출범(4월 4일) 이후 10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FTA 활용 지원 분야별로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

참고 1 : FTA활용지원정책협의회 개최 실적 참조

*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실장급(13명) 및 유관기관 부기관장 (7명)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형태로 구성

2. 주요 과제별 추진 실적

1 기업 FTA 활용역량 강화를 통한 수출 확대 지원

- 중소기업이 FTA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FTA 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애로요인 해소를 위해 노력

* 애로요인: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 활용방법의 복잡성, 전문인력 부족

- FTA 활용 컨설팅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기업에 대한 FTA 컨설팅 사업에 있어 기관별* 중복을 없애고, 소외 기업을 방지하기 위해 컨설팅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 (6월 말 예정)

* 관세청,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제원산지정보원, 지역FTA활용 지원센터

- 취합된 정보를 통해 기업 간 중복 및 소외를 사전에 방지하고, 기관 간 사업 연계 등 체계적 업무 수행에 활용

- FTA 활용 전문인력 양성: 전문 컨설턴트 양성, 대학 FTA 교육 확대, 원산지관리사 제도 활성화 등 추진

- 대기업 퇴직임원 등을 FTA 컨설턴트로 양성(연 80명)하여 FTA 컨설팅 사업에 투입(10월부터 투입 예정)

- 대학의 FTA 강좌*를 보강·확대하고 FTA 활용 관련 전문대학원을 선정해(광역권별 5개) 한시적으로 지원(2013년)

* (2011년) 39개 강좌 (23개 대학) →(2012년) 41개 강좌(29개 대학)

- 원산지관리사 제도를 국가 공인자격으로 전환(2013년)하고, 시험 횟수 확대(연 2회→연 3회) 등 원산지관리사 육성을 강화

■ FTA 종합 지원 포털 개선 : 포털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각 FTA 포털을 전문 분야별로 차별화·고도화

- FTA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기관별 전문 정보를 한눈에 소개하는 페이지('FTA Intro') 제공(5월 3일)

- 수요자 유형별·맞춤형·단계별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Customized FTA') 서비스 예정(6월 중)

■ FTA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 개선 : 초보자도 쉽게 사용하도록 중소기업 맞춤형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인 '간편 판정 FTA-PASS 시스템' 개발(6월 1일)

- ERP 시스템과 원산지 관리 시스템 간의 상호 연계 지원

* ERP와 FTA-PASS, FTA-KOREA와 연계하고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로 최적화된 연계 프로그램 설치비용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매칭 5 : 5)

- 원산지 관리 시스템 상호 간 원산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가 비용 부담 없이 유통되도록 전자 유통체계를 구축(올 하반기)

■ 원산지 확인서 활성화: 원산지 확인서 발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 강구

- 거래당사자 외의 제3자가 원산지 확인서의 정확성을 검토·인증하는 제3자* 인증제도 도입

* 확인서 발급·유통이 민간 사인 간에 발생한다는 점과 해당 업무의 공공성을 모두 고려하여 준공공기관을 통해 수행 추진

- 협력업체의 원산지 확인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세액 공제, 관세조사 선정 비율 축소, 마케팅 컨설팅 지원 등) 확대 검토

■ FTA를 활용한 해외 마케팅 개선: FTA 선도기업을 선정* 해 컨설팅부터 마케팅까지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고, 업종별·FTA별 특화 지원을 통해 마케팅 효과를 제고

* 한미 FTA의 주요 수혜품목(자동차부품, 섬유패션, 전기기기 등)에 대해 2012년부터 40개 대미 수출 선도기업 시범 지원

- 현지 인큐베이터 기능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

* 미국(4월, 디트로이트)과 독일(6~7월, 프랑크푸르트)에 국내 부품 업계 해외 진출 인큐베이터인 Korea Auto Parts Park를 설치하여 수출활동 지원

- 자동차부품, 섬유패션, 생활소비재, 정부 조달, 신성장 분야 (의료·바이오 등)에 대해 수주지원센터 운영 및 전시회 등 업종 별로 특화된 FTA 수출 지원을 강화

- 지자체와의 FTA 협력 강화 및 지역설명회 추진 : 시도 부지사가 참여하는 ‘시도 FTA 정책협의회’(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를 개최(연 3~4회)하고, 광역 지역에 대한 순회 설명회 실시

2 FTA 허브 이점을 활용한 투자 유치 활성화

- 한미 FTA 발효로 북미~유럽~아시아(ASEAN)를 잇는 FTA 네트워크가 구축됨에 따라 투자 유치의 우호적 환경이 조성
 - ▶ 미국, EU 등 FTA 체결국뿐만 아니라 미국, EU 진출을 원하는 주변국에까지 적극적 투자 유치활동 전개

- 외국인 투자 유치 : 상반기 중 미국, EU, 일본 등에 대규모 IR 전개를 통해 투자 유치활동을 강화하고 대한(對韓) 투자 붐 조성

* 특히, 투자 유입 가능성이 높은 일본에 대해서는 중점기업 타깃 마케팅 활동(직접 방문), 국내외 IR, Japan Desk 설치 등 유치활동 강화

- 유턴기업 지원 : FTA 발효, 해외 현지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을 적극 추진

- U턴 기업에 대한 정의·범위를 부분 복귀기업까지 확대하고, 세제, 입지, 인력, 수출금융 등을 지원

U턴 지원 범위 및 지원 내용

구분	유턴 유형		법인·소득세		관세 (신규)	보조금 (신규)	입지 (강화)
	해외 현지	국내	현행	개편안			
국내 생산시설 無	①완전매각/청산	신설	○	○	○	○	○
	②현지 생산시설 유지 /부분매각·이전신설	신설	×	○	×	○	○
국내 생산시설 有	①완전매각/청산	신설	○	○	○	○	○
		중설	○	○	○	○	○
	④현지 생산물량 감축 (부분매각·이전)	신설	×	×	×	○	○
		중설	×	×	×	○	○

3 보완대책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 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농수산식품업, 제약산업 등 피해산업을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전기를 마련

-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지원 :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식품 수입시장(1280억 달러)에 대한 점유율(0.4%) 확대를 추진

- 김(관세율 6% 즉시철폐) 등 관세상 이점 품목 중심으로 마케팅을 추진하고, 식재료로 활용 가능한 신규 제품을 개발

- 식문화가 유사하여 진입 장벽이 낮은 아시안(1500만 명) · 히스패닉(4900만 명) 등을 우선 타깃으로 하여 단계적 시장 공략

* 현재는 교포 중심의 수출이나 히스패닉마트 등과의 연계 판촉 등 추진

■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 신약 R&D 투자 실적 우수, 글로벌 진출 역량 보유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하여 약가 우대, 국가 R&D사업 우대, 금융·세제 등을 지원

* 총 83개사 접수(2012년 4~5월), 서면·구두 평가(5월 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6월)

- 전문 제약기업(Specialized Pharm)과 글로벌 제네릭기업(Generic Pharm)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 추진

■ FTA 국내 보완대책*의 효율적 관리: 주요 과제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성과평가 등을 통해 내실화

* 10년간(2008~17년) 총 24조1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 세제 지원(29조 8000억 원)까지 포함할 경우 실질적인 지원규모는 총 54조 원

- 260개 이행 과제에 대해 매분기별 점검을 지속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점검·관리
- 주요 40개 과제에 대해 성과 평가를 실시(상반기 18개, 하반기 22개)하고 과수, 원예, 수산 등 분야별 현장 방문 실시

4 소비자 체감효과 극대화

- FTA에 따른 이익이 일부 유통업자 등에 귀속되지 않고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 ▶ 수입품의 가격정보 공개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
 - ▶ 가격 변화 요인을 지속적으로 분석·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

■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관세가 철폐 또는 상당 폭 인하된 수입제품*을 대상으로 소비자가격 동향을 매주 모니터링 (공정위)

* 한미 FTA 관련 13개, 한·EU FTA 관련 9개(4월부터 모니터링 중)

- 가격 인하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품목에 대해서는 원인 및 유통 단계별 가격 등 심층 정보를 제공

- 관련 정보는 스마트컨슈머* 및 각 소비자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재

*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정보 종합 포털사이트

■ 유통구조 개선: 가격 인하가 미미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

- 유모차, 소형 가전제품(전동칫솔, 전기면도기 등) 등은 병행 수입 활성화를 통해 독점 수입경로와 별개의 유통구조 마련
- FTA 효과가 높은 농산물(오렌지 등)은 추가 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구매 적극 유도
- 주류(와인, 맥주 등) 수입업자의 소매 판매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 촉진
 - * 주류 수입업자의 소매업 겸업을 허용하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2012년 2월)

Ⅲ

주요 지표 추이

1. 교역

- 한미 FTA : 발효 이후 최근까지(3월 15일~6월 15일) 대(對)세계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한 데 반해, 대미 수출은 8.4% 증가
 - ▶ 특히 FTA 혜택 품목군(자동차부품, 석유제품 등)은 16.8% 증가하여 대미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비혜택 품목 3.8% 증가)
- 한·EU FTA : 발효 이후 최근까지(2011. 7. 1~2012. 6. 15) 대(對)EU 수출은 유럽의 재정위기 등의 영향으로 12.1% 감소
 - ▶ 수출 감소는 유럽의 재정위기 여파로 발주량이 크게 감소한 선박 수출 등에 주로 기인(선박 수출 Δ 47.3%)
 - ▶ 반면 FTA 혜택 품목군(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등)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2% 증가
- 한미 FTA : 한미 FTA 발효 이후(3월 15일~6월 15일) 대미 수출은 166억 달러(8.4% 증가), 수입은 115억 달러(6.3% 감소)로 무역수지는 51억 달러 흑자

- (수출 : 8.4% ↑) FTA 혜택 품목군의 수출이 비혜택 품목군의 수출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대미 수출 증대를 견인

구분	교역 규모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증감 (%)		
	수출	수입	총교역	수출	수입	총교역
대미	166	115	281	8.4	△6.3	1.9
대(對)세계	1438	1341	2779	△2.5	△3.9	△3.2

- (혜택 품목 : 16.8% ↑)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 (수출 증가율) 자동차부품 : 18%, 석유제품 : 8%, 고무제품 : 15%

* 가정용 침구류(20.9%) 등 고관세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중국산을 대체, 밀폐용기(12.5%)는 중국에 이어 시장 점유 2위(2011년 3위) 등극 (KOTRA 자료)

- (비혜택 품목 : 3.8% ↑) 자동차(31.3% ↑)와 항공기 및 부품(29.4% ↑)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무선통신기기(△45.5%), 반도체(△10.5%) 등 FTA 발효 전부터 무관세를 적용받는 IT 제품의 수출은 감소

- (수입 : 6.3% ↓) FTA 혜택 품목의 증가(4.2%)가 비혜택 품목의 감소(△15.1%)를 일정 부분 상쇄하여 수입 감소세 둔화

-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사료(26%)와 오렌지(34.8%), 호두(86.2%), 아몬드(69.8%) 등의 식료품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

■ 한·EU FTA: 발효 이후 약 1년간(2011. 7. 1~2012. 6. 15)의 대EU 수출 487억 달러, 수입 469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8억 달러 흑자를 기록

● 무역 흑자폭의 감소(전년 동기 140억 달러→18억 달러)는 유럽 재정 위기에 따른 수입 위축 및 우리나라의 선박 수출 감소(△47.3%) 등에 기인

● (수출: 12.1% ↓) 혜택 품목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선박 등 비혜택 품목의 감소폭이 커 전체 수출 감소

- (혜택 품목: 20.2% ↑) 자동차(38.0%), 자동차부품(15.8%), 석유제품(23.9%) 등 FTA 수혜 품목의 수출이 크게 증가

* 수요 가격탄성력이 큰 폴리에스터(관세 4%) 등에서 시장 점유 확대(이탈리아: 한국산 점유율 3→1위, 벨기에 수입시장 80% 점유/KOTRA 자료)

* 안경테(2.2%), 모조 액세서리(4%) 수출 금액이 400% 이상 급증(2011년 7월~2012년 2월 기준)

- (비혜택 품목: 32.6% ↓) 선박(△47.3%), 무선통신기기(△40.7%), 반도체(△44.1%) 등의 수출이 감소

● (수입: 13.5% ↑) FTA 혜택·비혜택 품목의 수입이 고르게 증가

- (혜택 품목: 12.9% ↑) EU산으로 거래처를 다변화한 원유(전년 동기 0→15억8000만 달러), 석유제품(106.2%)의 수입이 크게 증가

- 가방(35.0%), 신발(31.0%), 시계(51.1%), 화장품(10.2%) 등 소비재의 수입도 눈에 띄게 증가

- (비혜택 품목 : 14.9% ↑) FTA와 무관하게 무관세를 적용받는 컴퓨터 (27.8%), 무선통신기기(14.6%) 등의 수입이 증가

2. 활용률

- (한미 FTA) 발효 이후 최근까지(3월 15일~6월 15일) 수출 활용률은 59.2%로 발효기간 대비 매우 높은 수준. 활용 지원 노력의 성과
- (한·EU FTA) 발효 이후 최근까지(2011. 7. 1~2012. 6. 15) 대 EU 수출 활용률은 79.8%로 인증수출자 지정 조기 완료 등에 기인

■ 한미 FTA : FTA 수출 활용률*은 59.2%로 다른 협정의 발효 1년차(한·아세안 : 3.5%, 한·인도 : 17.7%)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

* 수출 활용률은 수출 통관 시 신고자료에 근거한 추정치

구분	한미	한·아세안	한·인도
	(발효 3개월)	(발효 1년차)	
활용률(%)	59.2	3.5	17.7

- 미국 측의 개방 수준이 높아 FTA 활용 유인이 크고 수출업체 컨설팅, 설명회 등 이행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한 결과

- FTA 수입 활용률*도 51.4%로 FTA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

* (발효 후 1개월) 44.0%→(발효 2개월) 48.2%→(발효 3개월) 51.4%

■ 한·EU FTA : 한·EU FTA 수출 활용률은 79.8%로 높은 수준

- 한·EU FTA가 개방 수준*이 높아 FTA로 발생한 관세 절감 유인이 크고, EU 수출 주요 기업의 인증수출자 지정을 조기에 완료하는 등 이행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한 결과

* (품목 수 기준) EU 측은 99.4%, 우리는 95.8%를 3년 내 조기 철폐

- 수입 부문 FTA 활용률도 57.3%로 안정적으로 증가

* (누적 활용률) 발효 후 1월 : 22.0%→4월 : 40.2%→7월 : 50.9%→11월 : 57.3%

- 한·페루, 한미 FTA의 발효에 따른 수입기업의 FTA 학습효과를 고려할 때, 향후에도 점진적인 증가가 예상

3. 투자 유치

- (한미 FTA) 발효 이후 최근까지(3월 15일~5월 31일) 외국인 투자 유치는 전년 동기 대비 211% 증가
 - ▶ FTA 발효에 따른 투자여건 개선 등으로 신규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447%)하고, 고용 창출에 효과 있는 그린필드형 투자가 증가(295%)
 - (한·EU FTA) 발효 이후 최근까지(2011. 7. 1~2012. 5. 31) 외국인 투자 유치는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
 - ▶ 신규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225%)하고 그린필드 투자가 증가(42%)
- ※ 모두 FTA 효과로 보기는 어려우나, 일정 부분 FTA 발효가 투자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한미 FTA: 한미 FTA 발효 이후(3월 15일~5월 31일) 외국인 직접투자(신고)는 전년 동기(1억9400만 달러) 대비 211% 증가한 6억300만 달러

- (업종별) 제조업(222% ↑), 서비스업(192% ↑) 모두 크게 증가
- (형태별) FTA 발효 등 한국의 투자 매력도 상승에 따라 증액 투자(53% ↑)에 비해 신규 투자(7600만 달러→4억1600만 달러, 447% ↑)가 증가

- (유형별) M&A형 투자(89%↓)는 감소, 신규 공장 설립 등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그린필드형 투자(1억5200만 달러→5억 9900만 달러, 295%↑)는 증가

■ 한·EU FTA : 발효 이후 11개월간(2011. 7. 1~2012. 5. 31) 외국인 직접투자(신고)는 전년 동기(27억9800만 달러) 대비 35% 증가한 37억7000만 달러

- (업종별) 제조업(42%↑), 서비스업(29%↑) 모두 증가

- (형태별) 증액 투자(2%↑)보다 신규 투자(3억8500만→12억 5400만 달러, 225%↑)가 크게 증가

- (유형별) M&A형 투자(8%↑)에 비해 고용 창출과 관련한 그린필드형 투자(22억2100만→31억4800만 달러, 42%↑)가 크게 증가

4. 주요 소비재 가격

- (한미 FTA) 발효 이후 최근까지(3월 15일~6월 14일) 13개 조사 품목 중 오렌지, 체리, 아몬드 등 9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
- (한·EU FTA) 발효 이후 최근까지(2011. 7. 1~2012. 6. 14) 총 9개 조사 품목 중 전기다리미 등 6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

* 공정위는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등 상당한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한 22개 주요 소비재(EU산 9개, 미국산 13개)의 FTA 발효 전후 소비자가 가격을 비교하여 실제 가격 인하 여부를 매주 점검 중

■ 한미 FTA : 미국산 제품의 경우 발효(2012. 3. 15)된 지 100일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품목의 가격이 인하

● 총 13개 품목 중 오렌지, 체리, 아몬드 등 9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

- (6월 14일 기준 인하율) 오렌지(▽17.6%), 체리(▽48.2%), 오렌지·포도주스(▽8.6%), 아몬드(▽8.8%), 스위트콘(▽15.6%) 등

● 호두*, 샴푸 등 4개 품목은 가격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상승

* 최근 1년간 수입 평균가격이 약 21.1% 상승(관세청)한 것에 기인

■ 한·EU FTA : EU산 제품의 경우 총 9개 품목 중 전기 다리미 등 6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

● (6월 14일 기준 인하율) 전기다리미(▽26.5%), 전기면도기 (▽4.4%, 1개 브랜드), 유모차(▽10.3%) 등

● 다만 위스키 등 3개 품목은 가격 변동이 없었고, 전동칫솔*의 경우 가격이 오히려 상승

* 해당 업체는 유가 및 각종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FTA 관세 철폐 효과 이상의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였다고 설명

IV

향후 계획

- FTA활용지원정책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 개선안을 지속하여 논의하는 한편, 이미 논의한 사항은 충실히 이행
 - ▶기업의 FTA 활용 애로를 해소하고, 소비자의 FTA 효과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

■ FTA 효과 제고를 위해 진행 중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 맞춤형 컨설팅, 지역FTA활용센터 운용, 투자 유치 활성화, 소비자가격 동향 모니터링 및 유통구조 개선 등 지속 추진
- FTA활용지원정책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과제는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점검* 실시

* 전문인력 양성 확대(대기업 퇴직임원 컨설턴트 양성, FTA 활용 전문 대학원 선정 등), FTA 포털 개선(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원산지 프로그램 개선(원산지 증빙서 유통 인프라 구축) 등

■ 기업, 소비자의 FTA 활용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가 발굴하고,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

●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및 성공 사례 발굴 노력도 지속

⇒ 기업의 FTA 활용상 애로를 해소하고, 소비자가 FTA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나갈 계획

참고

FTA활용지원정책협의회 개최 실적

회의 일시	논의 안건
1차(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활용 지원 정책협의회 운영계획(기획재정부) ● 각 기관별 FTA 활용 지원 현황 및 추진계획(각 부처)
2차(4.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기획재정부) ● FTA 활용컨설팅 이력관리시스템 구축방안(기획재정부) ● 농수산물품 대미 수출 증대 및 가격정보 제공방안(농식품유통공사)
3차(4.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활용 전문인력 양성방안(기획재정부) ● FTA 수입 소비재 가격 동향 및 소비자 정보 제공 확대방안(공정거래위원회) ● 한·EU FTA에 따른 중소기업 수출 성과 및 향후 계획(중소기업청)
4차(4.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활용 지원 사업 효율화 방안(기획재정부)
5차(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활용 지원 포털 개선방안(기획재정부) ●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및 향후 추진방안(지식경제부)
6차(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활용 지원 사업 효율화 방안(기획재정부) ●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 개선방안(관세청) ● 지자체와 FTA 협력 강화 및 FTA 지역설명회 추진계획(기획재정부)
7차(5.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를 활용한 해외마케팅 지원 현황 및 추진계획(지식경제부) ● 제약산업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방안(보건복지부) ● FTA 원산지 증명 현장 애로 및 개선 과제(총리실)
8차(5.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확인서 활성화 방안(관세청) ●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 이행 과제의 효율적 관리방안(기획재정부) ● U-Turn 기업 현황 및 지원방안(지식경제부)
9차(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한·EU FTA 활용 성과(기획재정부) ● FTA 활용 성공 사례 및 비즈니스 모델(중소기업청) ● FTA 수입 소비재 가격 동향 및 소비자 편익 제고방안(공정거래위원회)
10차(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확인서 및 관리 시스템 개선방안(기획재정부) ● FTA 활용 컨설팅·마케팅 성과 및 우수 사례(KOTRA 등)

V

FTA 지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FTA무역종합지원센터에서는 활용 프로세스별 맞춤형 지원, 지방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지원을 떠나갈 예정입니다.

컨설팅 지원

- 유관기관 및 관세·회계·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
 - 전국 16개 지역FTA활용센터에 관세·회계사 등 전문가를 파견하여 상시적으로 FTA 활용을 지원하고,
 - 상담 지원 후 원산지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기업에 파견하여 현장 컨설팅 실시

- FTA무역종합지원센터는 FTA 관련 제반 문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FTA Call센터' 및 'FTA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접수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이력관리를 통해서 최종 해결 단계까지 책임지고 처리할 예정입니다.
 - * FTA Call센터(운영시간 09:00~18:00) : 1566-5114
 - * FTA 신문고: FTA무역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okfta.or.kr)

청와대 정책소식 과월호

- 제125호 포괄수거제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 제124호 교통정책,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
- 제123호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해 불공정거래를 개선했습니다
- 제122호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과 성과
- 제121호 대한민국, 세계가 평가하다
- 제120호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
- 제119호 이동신문고, 국민 고충 현장 해결사
- 제118호 이제, 물 확보 여부가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 제117호 올해 5월부터 연대보증 제도가 개선됩니다
- 제116호 공공기관 이전, 4대강, 지역인재 채용 등 지방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 제115호 이명박 정부 4년, 경제 분야 주요 성과
- 제114호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위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 제113호 중소기업을 위한 한미 FTA 100% 활용하기
- 제112호 2012년 이런 정책들을 추진합니다
(22개 부처 및 4개 위원회 업무계획)
- 제111호 3월 2일 농협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 제110호 학교폭력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발간된 정책소식지를 보고싶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청와대 정책소식 _ 2009년 2월 23일 창간

펴낸이 _ 이동우 기획관리실장

엮은이 _ 최원목 국정과제1 비서관

대통령실 _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이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용하려면 출처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비매품>



대통령실